

'무더운 9월'... 유통업체 희비

가을의류 매출 줄고 빙과류는 때아닌 특수

겨울상품 조기 출시 매장도 늘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을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은 울상을 짓는 반면 맥주·아이스크림 매장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가을을 생략하고 곧장 겨울을 겨냥한 상품들을 조기에 출시하는 판매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가을의류는 침체, 여름상품 반짝=24일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늦더위와 경기침체로 인해 가을의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0% 이상 떨어졌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의 경우 9월 들어 여성복은 17%, 남성복은 18%, 아동복은 11%, 골프의류는 21% 매출이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가을상품을 대거 진열했지만 늦더위의 기승으로 재킷·니트·트렌치코트 등 가을 인기 아이템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여

성 캐리터·커리어 정장은 20%, 남성정장·캐주얼은 19%, 아동복은 16%, 골프의류는 15%나 감소했다. 영 캐주얼·영 캐리터 또한 각각 18%, 14% 줄었다.

김기봉 광주신세계 마케팅팀장은 "간절기 상품은 매년 시장이 줄고 있어 많은 물량을 준비하지 않지만, 올해는 늦더위로 인해 가을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부족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백화점에서 아이스크림·빙과류는 전년대비 52.5%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맥주나 캔 음료 판매장도 전년보다 2~3주 행사기간을 늘리고 물량도 더 많이 준비해둔 상태다.

광주지역 할인점에서도 맥주와 음료·빙과류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3.2%, 21.1%, 10.2% 늘었다.

◇가을 건너뛰고 겨울로=여름 같은 가을이 계속되면서 유통업체들은 매출 추락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름상품을 치우지 않고 매장에

그대로 배치하거나, 가을을 건너뛰고 아예 겨울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짧은 가을로 인해 9월에 가을 상품이 아닌 겨울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겨울용 머플러를 이미 매장에 내놓았고, 의류 브랜드의 경우 10%를 초겨울 에도 입을 수 있는 조끼·가디건·캐이프 등으로 채우고 있다. 롯데광주점도 겨울용 가죽제품, 털제품 등의 비중을 50%까지 늘렸다.

이밖에 GS홈쇼핑도 지난달 모피코트 방송을 통해 짙은 재미를 뽐내고, 육선 등 온라인쇼핑몰은 일찌감치 스키 시즌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윤중 롯데광주점 마케팅팀장은 "신선한 아침과 저녁은 물론 초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겨울 신상품을 조기에 출시해 매출부진을 만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짧은 가을을 고려해 겨울상품 출시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매일, 우유값 17.8% 인상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남양유업에 이어 매일유업도 우유 값을 올렸다.

매일유업은 24일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매일 ESL 우유' 가격을 1천850원에서 2천180원으로 17.8% 올린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아침식사 대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매일아침 새싹&씨앗우유(750ml)'는 1천950원에서 2천150원으로 10.2% 인상하고,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750ml)'는 3천원에서 3천400원으로 13.3% 올렸다.

이에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7일 가격을 올렸다. 이 회사는 흰 우유인 '맛있는 우유 GT' 1ℓ를 1천850원에서 2천200원으로 18.9%로 인상했다. /연합뉴스

금호 유럽형 타이어

'솔루스' 테스트 1위

금호타이어는 유럽형 사계절용 타이어 '솔루스'가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티스트(Auto Bild)에서 실시한 타이어 테스트 결과 최전성향 및 소음부문에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의 최전성향이 저다는 것은 연비 개선과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낸다는 것이어서 제품의 친환경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라며 "올해 하반기 유럽 시장을 공략할 주력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토티스트는 매년 타이어 교체시기에 맞추어 소비자에게 추천할만한 타이어의 성능을 비교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촌사랑 빌리지 닥터' 활동

전남농협, 보성 청암마을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24일 보성군 득량면 청암마을(대표 박신순)에서 마을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농촌사랑 빌리지 닥터'를 가동했다.

순천대 이기웅 교수 등 5명의 빌리지 닥터들은 소득사업(명품·명소 개발), 자매결연기업 협력·교류 확대, 마을개선, 1촌1명품 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청암마을은 지난 2005년 부산 한일유엔파트너스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이후 30회 이상 교류를 통해 1억1천4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장성에 물류 자동화 공장 짓는다

전남도-(주)일신엔지니어링 투자협약 체결

함평면 신호리 일대 1만7천㎡ 114억원 들여

전남도는 24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효경 (주)일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에 공장 자동화시스템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주)일신엔지니어링은 본사를 경기 화성에서 장성으로 이전하고 장성군 함평면 신호리 일대 1만7천㎡에 114억 원을 들여 포장단

위 적재 물류를 주문단위로 재분류해 포장하는 물류자동화 시스템 생산라인을 세운다.

공장이 가동되면 그동안 외국산에 의존했던 자동화 생산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자체 개발하는 등 연간 300억 원의 매출과 50여 명의 지역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일신엔지니어링 처럼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사를 전남으로 이

전하는 수도권 소재 첨단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9월 현재까지 주물업체인 'DS'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알밤 가공식품제조업체인 '알밤공작소'가 곡성에 옮겨오기로 하는 등 연말까지 6개의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작년까지 수도권 기업의 전남 이전이 1년에 많아 2건에 불과했는데 최근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전기업들이 최고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품나는 가을 정장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 7층 캐릭시 정장 매장에서는 24일부터 '다비드 프로젝트'를 가동, '슬림&스타일리시' 디자인의 정장을 선보이고 있다. '다비드 프로젝트'는 완벽한 남성의 외모를 상징하는 '다비드상'에서 모티브를 딴 기획으로, 최신 유행 트렌드를 반영해 불황에 빠진 남성 정장시장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백화점 제공>

소비자 절반 "대형 유통업체 이용"

광주YWCA, 500명 설문

물품을 살 때 소비자의 절반이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YWCA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광주를 비롯, 부산, 인천, 서울, 경기의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응답(1명)을 제외하고 248명(49.7%)이 물품구매장소로 대형유통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형 슈퍼마켓 142명(28.5%), 재래시장 99명(19.8%), 편의점 10명(2%)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한 달 평균 이용 횟수는 무응답(185명)을 제외하고 '1회' 162명

(51.4%), '2-3회' 95명(30.2%), '4-5회' 33명(10.5%), '5회 이상' 25명(7.9%)으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제품 구색(22.4%), 청결한 매장(16.8%), 저렴한 가격(15.8%), 좋은 품질(9.4%) 등이었다. 반면 대형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제품 구색이 과소비 유발(37.2%), 품질 불량(20.3%), 대량판매 중심(19.3%) 등이 제시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光·자동차·가전산업 키워 광주지역 고용창출 확대를"

광주상의 '광주·전남 고용포럼' 주제발표

광주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주력산업인 광산업을 비롯해 자동차·생활가전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와 광주시가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최하는 '제14차 광주·전남 고용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만석(전남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리 배포한 '광주지역 3대 주력산업 고용인적자원에 대한 실태분석 및 고용창출 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05년 이후 광산업 인력은 연간 693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 광주지역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비정규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최대 공급은 연간 643명에 불과해 인력부족률이 1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 교수는 기업수요에 맞춰 전문직 및 기능·단순노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인재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클러스터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광통신부품과 장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관련산업을 활성화해야 비약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간 516명씩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최대 공급인원이 1천108명에 달해 공급과잉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은 생산기술력 향상, 부품개발 기술력 향상,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을 꾀할 수 있는 전문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또 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6년 동안 연간 1천430명의 인력수요가 예측되는 생활가전 분야의 경우 우수 연구인력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신규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해외 우수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국제 공동연구사업, 협력사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

수세기소라·세계보청기

1588-8426 / 010-722-0100

10215300-9318